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간병비, 국가가 지원해야”

박용근 도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상 수 적어  
거동 불편 중증환자는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 한계 있어  
간병비극 방지 위해 국민건강보험서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22일 제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환자 가족에게 많은 부담을 주며 사회문제가 되는 간병비에 대한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 장기간 지속되는 간병의 경우 가족들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가정의 경제력 약화 및 가족 해체, 심각한 경우 간병 살인에 이르기까지도 한다.  
실제 도내에서도 간병부담으로 인해 올 초 80대 남성이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간병하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지난 2020년 완주에서는 간병에 지친 60대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간병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며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가능한 병동에 입원할 경우 따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실제 2인원 내외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하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현재 모든 병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며,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환자를 케어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거동이 불

편한 중증 환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은 “국민들에게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충분한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한계로 인해 일반병동을 이용하며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한 달에 약 300만원 이상의 고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간병휴직, 간병퇴직, 간병파산으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적·사회적 위험을 초래한다”며,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가정 내 간병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차원의 간병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22일 전주 신시가지 비보이광장에서 열린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생수 나눔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와 박두영 민주노동전북본부장,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이경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을 비롯한 이동노동자들이 생수 전달식을 갖고 있다.

## 도내 노사정 대표들 ‘시원한 나눔’

도·전주시·고용노동부 전주지청·전북 양대노총 등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얼음물 나눔 캠페인’ 전개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주요 노사정 대표 등이 참석해 폭염이 예고된 올 여름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전북도와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민주노동전북본부와 한국노총 전북본부 등은 22일 전주 이동노동자 캠퍼(신시가지 비보이광장에서) LG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하림이 기부한 생수 6,300병과 콜도시 등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받아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얼음물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북도 노동권익센터가 주관한 이

날 캠페인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이경환 지청장과 현대차 전주공장 하림 임직원, 민주노동전북본부 박두영 본부장, 한국노총 전북본부 권기봉 의장 등 도내 노사정이 참석해 힘을 모았다.  
이동노동자 얼음물 나눔 캠페인은 전북에서는 처음 진행되는 행사로 한 여름 무더위에 취약한 이동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이동노동자들은 도로의 복사열이나 자동차 등이 내뿜는 열기 등에 그대로 노출되고 헬멧과 보호장구로 인해 더위에 취약하며, 특히 폭

염 시 배달수요가 증가해 더위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날 나눔 행사는 도내 이동노동자들에게 얼음물 6,300병과 콜도시, 온열질환 예방 소책자를 전달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동노동자 얼음물 나눔 캠페인을 통해 우리사회가 노동자의 권익과 산업안전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전북도도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보다 많은 정책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캠페인처럼 도내 노사정이 상생의 노사문화를 형성해가면서 기업하기 좋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전북을 만드는데 힘을 더욱 합치자”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 “기업 수요 충당... 새만금 국가산단 조기 완공을”

김동구 도의원 “국내·외 기업 유치로 용지 부족  
국내 유일 CF100 실현 가능지로 기업들이 주목”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은 22일 제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업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작된 새만금국가산업단지는 9개 공구로 분할 매립·조성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조 620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1·2공구는 조성 완료됐고 5·6공구는 2024년 2월 3·7·8공구는 2027년 4·9공구는 2030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최근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이차전지, 그린수소 등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져 용



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부지 투자는 2018년 이전까지 7개에 불과했지만, 2019년부터 급속히 늘어 2023년 현재 46개 기업으로 투자 규모는 약 7조 8861억 원에 달한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새만금에 몰려드는 기업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새만금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김동구 의원은 “새만금 국가산업단

지 입주 시기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업체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CF100 실현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이 다시 새만금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현재까지 1·2공구를 비롯해 2024년 2월 완공 예정인 5·6공구까지 잔여 부지가 얼마 없어 추가적인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 신산업의 기업 유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기대되는 만큼 3·7·8공구 매립·조성 공사를 서둘러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도·일요일 신문 쉼니다.

## 도내 마을기업 2곳, 행안부 ‘모두애’ 선정

전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행정안전부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완주 비봉우리공두부 영농조합법인은 완주군 비봉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100% 지역 자원을 활용해 두부류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임실군 강진

면에 위치한 농어업회사법인 섬진강 다슬기마을 주식회사는 지역에서 채취되는 다슬기를 활용해 다슬기 맑은 국, 다슬기 진액, 다슬기 진액 스틱 등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개사에는 최대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된다. /김재훈 기자



###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